

화정 2구역 사업 중단...주민 불편 어찌할꼬

10년 넘게 방치...또 장기화 예고 기대 컸던 인근 상가·주민 실망 서구 미숙 행정 비판 여론도

광주시 서구 화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중단되면서 개발 기대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꿈꾸던 지역 부동산업계가 울상이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10년 넘게 방치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슬럼화된 주거 환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중단, 위험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공급 일정이 늦춰지고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살 기회가 미뤄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실망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화정동 778번지 일대에 진행중인 '광주화정 2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일보 6월 12일 6면>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

광주고법은 최근 '광주화정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해당지구 내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적절한 주민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관련 사업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토록 했다.

이번 판결로 화정 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구 지정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뒤 5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다.

서구청은 지난 2007년 11월 화정동 778번지 일대 주택가 2만5000㎡의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고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그러나 지난 2013년에야 노후 주택들을 철거하고 공공임대 및 분양 아파트 44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애초 국민임대주택(504가구)을 지으려던 LH는 경기 침체, 수익성 등을 이유로 6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분양아파트 등을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이때만 해도 ▲10년 넘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표류하면서 슬럼화됐던 주변 환경 개선 ▲LH가 4년 만에 저렴한 분양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택업계와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5개월 만에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구청의 어설픈 행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어 위험한 공사 현장 주변을 오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처

지다. 주택 시장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실망으로 바뀌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임대(108가구) 및 분양(332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LH 아파트의 경우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 또 녹지공간,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등 기반시설(4000㎡)도 들어서 생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하철역, 광주종합터미널 및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입지 여건도 장점으로 꼽히면서 부동산업계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 서구청의 어설픈 행정 절차와 LH의 사업 장기화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전국 최고 7.6%...세입자 월세 부담 커져

전남지역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고 기준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남의 전월세 전환율이 7.7%로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월세 전환율(6.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남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1월 7.7%를 기록한 뒤 2월 7.4%로 낮아졌다가 3월(7.5%)부터 상승세다.

유형별로는 전남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4%(3월 7.2%), 연립·다세대주택 8.8%(3월 9.4%), 단독주택 9.9%(3월 9.8%)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이 3월 신고분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목표는 250개 시·군·구의 132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교 결과,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7.6%로 가장 높았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목포의 경우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 예상 물량이 764가구로, 지난해(963가구)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도 많지 않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라는 게 한국감정원측 설명이다.

광주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6.9%로 전월(7.0%)에 비해 0.1%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2%(3월 5.2%), 연립·다세대주택 7.9%(3월 8.6%), 단독주택 9.7%(3월 9.8%) 모두 전월보다 낮았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4%, 연립·다세대 5.8%, 단독주택 7.0% 순이었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1%, 단독주택 9.6%로 조사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비맥주 몽골 봉사 '카스 숲' 나무 심기

오비맥주(대표 고동우)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을 맞아 국제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 임직원, 푸른아시아 관계자, 몽골 대학생,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봉사단 60여 명은 13일 에르덴 슌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팀을 나누어 벌판에 포플러 묘목들을 심는 식수작업과 직접 판 우물에서 양동으로 물을 길러 나무에 뿌리는 관수작업을 벌였다.

오비맥주는 조림사업뿐 아니라 사막화 피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몽골 환경난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도 수행한다. 환경난민 주민들이 스스로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몽골 양모공예품 원자재와 육포 생산시설



오비맥주 임직원 등 봉사단은 지난 13일 몽골 에르덴 슌 지역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활동을 펼쳤다. <오비맥주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림활동에 앞서 몽골 환경난민촌 대표는 몽골 환경난민들의 자립 지원과 환경 복원 사업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오비맥주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몽골 사막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을 포함

한 동북아시아의 심각한 환경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환경보전에 힘쓰는 기업으로서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 외에도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오비맥주가 국제 NGO 푸른아시아와

함께 사막화 방지와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몽골 에르덴스(郡)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201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으로부터 '생명의 토지상(賞)'을 수상해 바람직한 환경모델로 인정받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차량정비 특기병 취업 지원 나선다

특기병 전역자 취업지원·채용 업무

·일시 : 2018. 6. 14.(목), 11:00 ·장소 : 인천병무지청 대회의실



기아차가 차량정비 분야 특기병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기아차는 14일 서비스 협력사인 오토큐, 인천병무지청,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특기병들의 취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정한 기술훈련원을 통해 기술 훈련을 받은 뒤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현역병 모집의 한 분야다.

이들은 전역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동일 유사 직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

는다. 기아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806개 오토큐의 엔지니어 채용 수요조사를 받아 인천병무지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가 오토큐 취업 후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아차 교육 센터를 통해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 활동이 중소기업 위주의 병역지정업체로 한정됐지만 이번 협약으로 전국 806개 소인 오토큐로의 취업 길이 열려 전역자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클릭으로 '현대 브랜드 컬렉션' 장만...온라인숍 개설

현대차가 현대 브랜드 컬렉션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현대 브랜드 컬렉션 온라인숍'을 개설했다.

이번 온라인숍 개설을 통해 기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브랜드숍 및 현대자동차 분사에서만 구매 가능했던 상품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그동안 미국의 신발 브랜드 탐스(TOMS)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드라이빙 슈즈, 보스토크, 솔더백, 조경량 우산, 차량용 방향제, 텀블러 등 생활·레저 컬렉션 등을 판매해왔다.

온라인숍에서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문구 ▲모형 자동차(다이캐스트) ▲컬

렉션 등으로 나눠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온라인숍 개설을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할인쿠폰 지급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모형 자동차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 브랜드 컬렉션'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 구분 | 보증금 | 연회비 (VAT포함) | 비고 (2018년 기준) |
|----|--------|-------------|------------------------------|
| 개인 | 850만원 | ₩ 1,920,000 | 1구좌 기명1인 |
| 가족 | 1275만원 | ₩ 3,140,000 |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
| 법인 | 1700만원 | ₩ 4,350,000 |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